



보도시점 2024. 4. 16.(화) 15:20
< 4.17.(수) 조간 >

배포

2024. 4. 16.(화)

기업과 함께 신진연구자 성장 본격 지원

- ① 전략수립·과제기획·선정평가 등 연구개발(R&D) 프로세스 전반에 신진연구자 참여 확대
- ② 신진연구자 전용 혁신도전 연구개발(R&D) 사업 신설
- ③ 10만원 이하 연구비 증빙 면제, 연구비관리지원인력 채용으로 행정부담 경감
- ④ 산업부 사무관·PD와 신진연구자간 상시소통채널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16.(화) 서울 한양대학교 (종합기술원)에서 대학·연구소 신진연구자, 기업 CEO·CTO 등과 함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신진연구자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16차례에 걸쳐 239개기업·기관, 791명의 연구자들과 소통을 통해 발굴한 현장밀착형 정책과제를 담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신진연구자 : 박사학위 소지자 중 ①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②만39세 이하 또는 ③최초 조교수 이상 임용된 지 5년 이내 연구자

첫째, 신진연구자들이 정부 연구개발(R&D)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투자전략 결정과 연구개발(R&D) 기획에 신진연구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선정평가위원 풀에 역량있는 신진연구자를 발굴해 두 배(1,265 → 2,600명 이상)로 늘린다. 기업 수요와 연계한 신진연구자 전용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신진연구자가 연구책임자인 과제비율을 현재 10%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20%까지 높여나간다.

둘째, 학생·신진연구자의 연구비 정산·관리 부담을 덜어 연구몰입도를 높인다. 대학·출연연에 대해서는 자체 회계감사를 통한 정산을 허용하고, 대학에 대한 재료비·회의비 등 10만원 이하 연구비 증빙을 면제한다. 대학·출연연에 대해서는 연구비 5억원 이상인 경우 연구비 관리 지원인력 활용을 의무화해 영수증 첨부 등의 행정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셋째, 신진연구자와 기업간 네트워킹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을 위한 연구자 정보와 연구자를 위한 기업전략 정보를 지원하고, 협업 파트너 연결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매월 첨단산업 온라인 기술 교류회, 주요 학회를 통한 오프라인 네트워킹, 기술분야별 프로그램 책임자(PD)와 상시소통 채널을 구축한다.

넷째, 미래 연구자 양성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매년 산업계가 요구하는 산업·에너지 분야 석박사 6,000명을 양성한다. 12개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 센터를 구축하여 글로벌 연구개발(R&D) 공동연구 시 국내 신진연구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첨단산업 분야 해외공동연구비용(약 1억, 6~12개월)을 지원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안덕근 장관은 “인재는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강조하며, “신진연구자들이 기업과 협력해 초격차 우위 확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 권	044-203-4510
		담당자	사무관	최재혁	044-203-4513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개발과	책임자	과 장	박용민	044-203-4530
		담당자	사무관	신홍섭	044-203-4534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책임자	과 장	서성태	044-203-4540
		담당자	사무관	김영훈	044-203-4544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1 (자체정산) 자체정산 인정을 확대하여 정산에 소요되는 부담 완화

- (현황) 회계법인을 통한 정밀정산이 원칙이며, 연구지원체계평가 우수기관 또는 성과우수 과제 등의 경우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를 통한 정산대체를 실시 가능

* 정밀정산은 회계법인이 집행건별 증빙을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증빙 요구 → 각 담당자가 추가증빙 작성·대응을 상시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행정부담이 大

- (문제점) 비영리·영리기관 구분없이 정산이력 상 불인정금액이 없는 경우 자체정산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음

* 과거 3년 간 5회 이상 정산확정을 받은 기관 중 모든 과제에 대해 불인정금액이 없는 경우(단, 과거 5년간 참여제한 및 환수 이력이 없는 기관에 한함)

- (개선방안) 대학·출연연·우수 전문연에 대하여 자체정산을 허용

*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상 간접비고시비율이 고시(과기부) 되어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

** 각 대학의 외부감사 및 샘플링 정산 등을 통해 연구비 오·남용 방지

- (기대효과) 비영리 연구기관 연구자, 학생연구자의 정밀정산 대응 업무 완화를 통해 학생 및 신진연구자의 연구몰입도 제고

② (증빙 간소화) 일부 연구개발비 집행등록 시 별도 증빙제출 없이 인정

- (현황) 재료비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구매의뢰서 등 모든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회의비는 10만원 이하인 경우 내부결재문서, 회의록을 회의목적 등이 기재된 별도의 증명자료로 대신함
- (문제점) 소액 재료비에 대한 행정소요가 과다하여 학생연구원들이 사비로 재료를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회의비 역시 집행빈도 및 중요도에 비해 행정소요 과다
- (개선방안) 연구비전용카드(체크카드)를 도입하여 내역을 자동으로 RCMS(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대학의 경우 연구비전용카드 사용금액 중 건당 10만원 이하의 회의비 및 재료비는 증빙자료 제출 없이 연구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 * 증빙자료 없이 사용 가능한 금액은 월별 한도 100만원으로 한정
 - * 연구비전용카드 도입을 위한 RCMS 시스템 고도화(~'25.3월)
- (기대효과) 소액 재료비·회의비 증빙자료 작성·제출 소요를 완화하여 연구자의 연구 몰입 환경 조성

③ (연구근접지원인력 지원 확대) 대학이 일정 규모 이상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 연구비 관리를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을 필수 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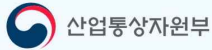
- (현황) 각 대학에서는 연구비 중 인건비에서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계상 가능
- (문제점) 실질연구비 감소 우려 및 행정제도 인식 미흡으로 인해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미활용 기관이 다수
- (개선방안) 교수별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비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근접지원인력 1명 편성 의무화
 - * 학생연구원 등 참여연구원에게 별도 계약 없이 연구근접지원인건비 추가 계상 가능(추가수당)
- (기대효과)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을 편성하여 학생연구원의 행정업무 부담 저감

**4 (연구비 통합 연계모듈 구축)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 Ezbaro)과
연구개발기관 내부시스템 간 연계 모듈 일원화와 연계절차 표준화**

- (현황) 각 연구개발기관의 내부 연구비 관리시스템과 각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RCMS·Ezbaro)을 연동하기 위해 연계모듈을 각각 개발
- (문제점) RCMS와 Ezbaro 연계프로그램 개발소요 이중 발생 및 각 시스템의 연계정보가 달라 연구현장 혼란
- (개선방안) RCMS와 Ezbaro의 연계 모듈을 일원화하고, 연계절차 표준화를 위해 관리시스템 연계 온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
- (기대효과) 데이터 기준 일치를 통한 이중입력을 방지하고 연구기관의 연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편의성 증대(~'24末)

5 (규제개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명확화

- 학생연구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최소참여율 10% 제한 삭제
 - *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연구자에 대한 참여율 정보 등을 입력할 필요가 없음
- 대학 등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연구수당의 계좌이체 증빙 면제
 - * 규정 상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연구수당의 계좌이체 증빙을 요구하지 않으나, 각 회계법인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회계법인 교육 철저
- 연구개발비 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허용 예외조항 신설
 - * 연구개발비 카드 발급 전에만 법인/개인카드를 허용하고 있으나, 연구개발비 카드 집행불가 업종 등 예외사유에 따라 허용 필요



세계적 연구자로서의 여정, 기업과 협력을 통한 성장

첫째 신진연구자의 산업·에너지 R&D 참여 확대

정부 R&D 전과정에 신진연구자 역할 강화



전략수립

- 최상위 의사결정
- 중장기전략 기술로드맵 수립
- 40대 초격차 프로젝트팀



과제기획

- 기획위원회 참여 의무화
- 과제수요 별도 접수
- Peer Review 참여



선정평가

- 평가위원 풀 두 배 확대
- 선정평가 읍저버 참여
- 평가위원 마일리지 반영

신진연구자 전용 도전혁신 R&D 사업 신설 추진

신진연구자
아이디어
기업
수요제기

2년 개인연구
(정부, 연 2억)

기업
매칭

공동연구
(정부+기업, 연 5억)

둘째 학생·신진연구자 연구몰입 환경 조성



연구비 관리 시스템 보유
대학·출연연 등 자체정산 허용



10만원 이하 연구비
증빙 면제(대학)



연구비 5억원 이상
연구비 관리지원인력 의무화



증빙자료 표준화 등
연구비관리 시스템 간 연계



학생연구자 최소참여율
10% 제한 삭제



법인·개인카드 허용범위
확대

셋째 연구자-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

연구자-기업 정보 플랫폼

연구자 정보

연구분야, 논문·특허,
이전가능기술 등

기업 정보

대외 공개 기술전략,
관련 보도 등



연구자 - 기업 매칭
(상시 연구제안 + 파트너 발굴연결)



연구자 협력제안·연구성과 교류(온라인)

- 6대 첨단산업부터 월 1회 개최(산업부 사무관-PD 상소통제실 마련)
-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미래차

지역별·분야별 네트워킹 데이(오프라인)

- 주요 학회 학술대회 네트워킹 세션
- 전국 5대 권역별 R&D 설명회

넷째 인력 양성 지원 강화



글로벌 인재로 성장 지원

- 전략적 공동연구 추진
(초격차, 산업원천 등 180대 기술)
- 해외 연구기관내 6개 협력센터 구축
- 국내연구자 해외 파견



7개 첨단산업 대상 해외 공동연구비용 지원

-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24-, 1923명)
- 국내연구자 해외 파견('24-, 500명)



젊은 연구자의 빠른 성장을 위한 인프라 강화

- 산업에너지 석박사 양성
('24년 6,000명 이상)
- 반도체 고급인력양성

참고3

신진연구자 성장 대화 행사 개요

1. 행사취지

- 신진연구자가 도전적 연구 기회확보, 기업협력연구를 통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및 기업협력 촉진방안 논의

2. 행사개요

- 장소 : 한양대학교 HIT(종합기술원·산학협력센터) 대회의실(6층)

□ 참석

- (정부) 산업부 장관(주재), 산업기반실장, 산업기술정책국장, 청년보좌역 등
- (기업) 산학협력 주요기업 CEO·CTO·연구책임 임원 등 8명
- (연구자) 대학·출연연 신진연구자(8명) 선배연구자(2명) 학생연구자(2명) 등 12명
- (기타) 한양대 연구부총장, 산업기술진흥원장, 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 참여 희망 학생 연구자 20여명 방청

□ 세부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5:20~15:50	30'	산학협력 현장방문(EUV-IUCC)	산업부 장관
15:50~15:55	5'	입장 및 사진촬영	
15:55~16:00	5'	모두발언	산업부 장관
16:00~16:15	15'	발제① 신진연구자 지원 방안	산업부
		발제② 신진연구자님께 드리는 이야기	선배연구자
		발제③ 산학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가치	현대엔지니어링
16:15~17:25	70'	참석자 토론 (사회: 공학 전문 유튜버 SOD)	
17:25~17:30	5'	마무리 발언	산업부 장관